

- 주요 뉴스: 미국 1/4분기 성장률 발표 예정 전가비 둔화 예상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관심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수준 높아도 질서 있는 대응이 적절
 - ECB 총재, 미국과 유럽 모두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으나 원인은 다소 상이
 - 중국 인민은행 총재, 경기부양 강화를 위해 완화기조 유지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2.8%], 달러화 강세[+0.7%],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기업 실적둔화 및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매도세 강화
유로 Stoxx600 지수는 ECB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1.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과 여타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1.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 전망 등이 원인
독일은 ECB의 매파적 통화정책 전환 예상 등으로 13bp 상승
- ※ 원/달러 환율(주간) 0.8% 상승, 한국 CDS 상승

		4/22일	4/15일	전주말대비			4/22일	4/15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271.8	4,392.6	-2.75%	국채 금리 10y	미국	2.90%	2.83%	7bp
	유럽	453.31	459.82	-1.42%		독일	0.97%	0.84%	13bp
	중국	3,086.9	3,211.2	-3.87%	CDS 5y	한국	36bp	32bp	4bp
	일본	27,105	27,093	0.04%		중국	73bp	67bp	6bp
	한국	2,704.7	2,696.1	0.32%	위험 지표	EMBI+	396	375	21bp
환율	달러지수	101.22	100.50	0.72%		VIX	28.21	22.70	24.27%
	유로화	1.0790	1.0810	-0.19%		WTI유	102.07	106.95	-4.56%
	엔화	128.50	126.46	-1.59%	원자재	구리	458.2	472.4	-3.01%
	위안화	6.5014	6.3715	-2.00%		금	1,931.6	1,978.2	-2.36%
	원화	1,239.1	1,229.6	-0.7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4분기 성장률 발표 예정, 전기비 둔화 예상.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관심
 - 4/28일(목) 발표될 예정인 미국 1/4분기 성장률(속보치)은 작년 4/4분기(6.9%)와 비교하여 크게 둔화되었을 것으로 예상.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1.0%를, 애틀랜타 연은은 1.3%를 전망치로 제시
 - 이는 '21년 4/4분기 성장률 급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기업 생산 및 재고 증가가 더 이상 이전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Credit Suisse는 연초 이후 개인소비가 증가한 반면 재고는 다소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블룸버그는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재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전망. 한편 모기지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고 부족 등으로 건설지출은 단기적 측면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을 가능성
 - 소비의 경우 1/4분기 말에 인플레이션 심화 및 금리상승에 따른 영향을 일부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다만 1/4분기 이후에는 관련 여파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최근 경기후퇴 관련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제 펀더멘털은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 이에 연준은 경제 여건 대비 통화긴축이 상당히 뒤쳐져 있음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중립금리 도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수준 높아도 질서 있는 대응이 적절
 - 메스터 총재는 매파적 인사로 평가되지만, 과도하게 공격적인 금리인상 경로보다는 질서 있는(methodical) 접근이 중요하다고 언급. 이에 6월 0.75%p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부연. 최근 선물시장에서는 6월 0.75%p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
- 유명 투자가 캐시 우드, 연준의 금리인상은 시장 예상을 하회할 전망
 -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극적으로 완화되면서 통화당국도 시장에서 관측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금리인상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피력. 또한 연준은 과도한 긴축이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발언

■ ECB 총재, 미국과 유럽 모두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으나 원인은 다소 상이

- 라가르드 총재는 양측 모두 인플레이션 완화가 필요하지만 유럽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50%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원인이기에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 반면 미국은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이 관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 독일 중앙은행,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시 금년 GDP는 전년비 2% 감소 추정

-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해외수요 감소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의 회복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

■ 프랑스 대선, 마크롱 대통령 연임 성공 확실히. 출구조사에서 큰 격차로 승리

- 4/24(일) 치러진 선거 이후 발표된 출구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현 대통령이 57.6~58.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반면 르펜 후보는 41.8~42.4% 득표율에 그칠 전망. 마크롱 대통령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 중국 인민은행 총재, 경기부양 강화를 위해 완화기조 유지

- 이강 총재는 특히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대응이 가능. 위안화 환율 안정 기대

-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에 대처할 수 있으며, 대외 불확실성이 위안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대변인은 양호한 대외채무, 지속적인 경상흑자 및 해외투자 등으로 위안화 환율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4/22 현지시각 기준)

- 영국 4월 GfK 소비자신뢰: -38, 3월(-31), 예상치(-33)

■ 주요 경제 이벤트(4/2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4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 독일 3월 Ifo 기업여건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중립금리 파악,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 - WSI

(The Fed Wants to Raise Rates Quickly, but May Not Know Where to Stop)

- 연준은 인플레이션 제어 관련하여 중립금리 예측 및 도달 속도 결정이 중요.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을 고려 시 실질 중립금리는 연준의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 최근 다수의 연준 인사는 중립금리가 2.25%~2.5%이며, 금년 내 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한편 지난 3월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23년 정책금리가 2.75%에 도달하여 중립금리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음을 제시. 그러나 해당 전망도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미국 물가연동채권 10년물 실질금리의 플러스 전환, 신흥국 투자에 부정적 - 블룸버그

(Positive U.S. Real Yields Add to Toxic Emerging-Market Cocktail)

- 최근 미국 물가연동채권 10년물 금리는 일시적으로 플러스 기록. 플러스 수준이 지속되지 않았으나 2년 만에 발생한 이번 전환은 신흥국 투자의 위험을 높이는 신호일 가능성. 신흥국 투자는 높은 기대수익률을 원하는 투자 수요가 높기 때문
- 과거에도 미국 실질수익률이 상승할 경우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이 증가하면서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신흥국의 성장률 둔화 압력 증가는 신흥국 투자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

■ 엔화 급락, 일본 투자자의 미국채 매각이 미국 주가 변동성 확대에 연결될 소지 - WSI

(Japanese Yen's Drop Raises Potential for Broader Market Trouble)

■ 러시아의 원유 수출 다변화 노력, 운송시간비용 증가 등으로 효과는 불확실 - 블룸버그

(The Coming Russian Struggle for New Markets for Its Oil)

■ 러시아 제재의 실효성 제고, 관련 금융기관 및 기업의 협력이 요구 - Financial Times

(The flood of Russian sanctions has left banks in need of hel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